

[S1-1] 한국사에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안상현¹, 박중우²

¹한국천문연구원, ²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조선시대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천문 관측 기록 가운데 특히 달가림(lunar occultation) 기록을 분석하여 당시의 시간제도와 하루의 시작점을 알아냈다. 조선시대에는 일식이나 월식을 계산할 때는 백각법(百刻法)과 12진각법(十二辰刻法)이 사용되었고 하루의 시작점은 자정이었으나, 일상생활과 특히 천문관측에서는 경점법(更點法)이 사용되었고 하루의 시작점은, 최소한 고려시대부터는, 해 뜰 무렵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용한 혼명(昏明)의 시간은 현대의 항해박명(nautical twilight)을 뜻함을 알아냈다. 우리의 결과는 현재 일상생활의 시간관념이 옛날 시간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주며, 농경사회에서 해의 뜨고 짐에 따라 일상생활이 정해지고 또한 천문 관측상 편리하기 때문에 경점법을 쓴 것이라고 해석된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앞으로 고대 천문 관측 기록의 시간을 정확하게 미루어 계산하고, 그것을 현대 천문학적 자료로 사용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S1-2]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현황

- 역대 결과 및 규정을 중심으로 -

임인성¹, 최승연², 박용선³

¹한국천문연구원, ²서울대학교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³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국제천문올림피아드는 유로-아시안 천문학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천문학 지식의 확산, 교육 분야의 국제교류 증진, 과학과 인간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천문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국제천문올림피아드를 설립하고 국제올림피아드 설립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1996년, 제1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를 러시아 북 코카서스 지방에 있는 Special Astrophysical Observator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SAO RAS)에서 시범 개최한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천문학회에서는 2001년 한국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한국천문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2002년부터는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한국국제과학올림피아드 천문분과에 참여하게 되어 과학 기술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천문올림피아드의 역대 결과 및 기구, 조직, 실행에 대해 국제천문올림피아드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논의를 통하여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